

# 법안정사 법회중단 '위기'

## 창건주와 운영권 마찰... 주지스님등 사의 표명

지난 90년 효경스님이 목동 종교 부지에 설립하여 도심포교의 모범적인 사찰이었던 법안정사가 창건주인 김법련화보살(부군 이병호변호사)측과의 마찰로 사찰운영이 공백위기에 처했다.

법안정사측은 최근 어린이, 청소년, 청년법회 교사와 간사들에게 법회를 9월말까지 회향하라 발표했다는 것. 이로써 창건주인 도심

포교의 한 획을 그으며 일요신도법회, 부부법회, 청년법회, 청소년법회, 어린이법회등이 운영돼온 법안정사의 모든 법회가 10월말 일순간에 사라지게 됐다.

현재 주지 효경스님이 대각회에 사표를 제출했는가 하면 다른 스님들도 이미 떠나시기 시작했다. 효경스님은 "창건주가 손을 떼야 끝나는 것 아니냐"며 "창건주가 시주

를 가장 많이했다며 자기가 사찰을 운영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스님은 "사찰운영이 93년 이후 창건주측과 마찰을 빚은 이후 파행을 거듭해왔다"며 "11월 19일 수능기도를 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만큼 종무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해 11월 19일 이후에 김법련화보살측이 사찰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했다.

법안정사 문제는 93년 창건주인 김법련화보살의 부군인 이병호씨(15대 대선후보, 변호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정사측에 따르면 이병호씨는 지난 14대 대선에서 참패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법안정사를 지목하고 주지스님이 도움을 주지않은 것은 물론 신도들조차도 자신을 적지않았으며 불만을 표출했었다는

것. 그러다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개종 한 것이 순복음신문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김법련화보살측은 사무장을 새로임명하고 효경스님등에게 조건없이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또 그동안 사찰수입도 제반경비를 제하고 5:5로 분할해왔다고 전했다. 법안정사는 4층 법당과 대지가 대각회 명의로 돼 있고,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는 김법련화보살 명의로 돼 있다.

한편 현도스님(부주지 및 포교원장)은 이번 10월 1천원 기도 회향 후 절을 비워주면서 일산포교당 길 상사를 개원하고 부부법회 합창단 교양대학 반쪽의 신도회등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찰운영권을 두고 창건주와 주지 신도대중의 이같은 갈등이 표출된 것은 법안정사가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종단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 "밝게 커가는 애들보면 뿌듯"

미혼모의 집 '보리수마을' 5년째 운영 오정스님



위해 가장절처려 안락하게 꾸렸다. 현재 18개월된 회주로부터 초등 2년생 효석이까지 9명의 아이와 3명의 미혼모가 입주해 있으며 4녀여동안 40여명이 거처있다. 요즘에는 소문을 듣고 매달 아내들도 찾아 오곤 한다.

보리수마을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월 4백만원선. 아이들 한명당 월 15만원, 미혼모들에게는 병원비를 포함 월 30만원이 소요된다.

보리수마을에는 총 75가구로 된 후원회가 조직돼 있다. 이들은 인등을 달고 월 3만원씩을 보시한다. 절에서는 대가로 생수를 배달해준다. 생수배달을 위해 새우물을 파고 정수기도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모인 보시금은 월 3백만원선이지만 아이들아 놀고 직인도 생겨 경비가 모자란다.

처음에는 스님이 직접 배달을 다녔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이 물장사를 한다고 못마땅해 했고 일부 신도들은 절에서 애를 낳아 키운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가장 난감했던 일은 산도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을때. 스님은 미혼모와 장애아를 돌봐 줄 복지법인을 세우게끔 꿈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일반사회에서도 소외받기 쉬운 미혼모를 돌보는 스님이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오갈데 없는 미혼모와 아이를 5년째 돌봐주고 있는 주인공은 오정스님(동화사 재무국장·감천사주지).

스님은 93년 감천사(대구시 동구 진인동) 경내에 미혼모의 집인 보리수마을을 설립했다. 교원과 장애아를 위한 시설은 있어도 미혼모를 위한 시설은 거의 없다는데 착안한 것. 보리수마을은 대지 6백평, 연건평 1백평의 2층 양옥 2동과 단층 1동으로 되어 있으며 대소의 방 15개가 마련되어 있다. 수용소 같은 답답한 분위기를 없애기

## 동산불교대 LA에 분교 개설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은 19일 불교대학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LA관음사에 분교를 설치한다.



## 이회창대표 종교편향대책위 구성

신한국당 이회창대표 특정종교편향 발언과 관련, 교계 17개단체는 신한국당이 6일 직접해명과 공식인정발표 요구시한을 넘김에 따라 '특정종교편향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응키로 하고 조계사에서 사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어 불교대책위원회는 27일경 '특정종교편향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공서'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종교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일고자 하는 정신문화이며 이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성직자들의 몫이다. 그런데 어찌구무에 성직자가 타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파괴와 훼손을 일삼고 있어 경악을 넘어 자괴심마저 수구친다.

대전 중앙성경교회 불교유해전단배포 사건이 일례다. 이 교회는 89년 11월 82년 불속법어, 89년 신년법어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조해 마치 자신의 종교인 불교인 듯 교회는 89년 11월 82년 불속법어, 89년 신년법어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조해 마치 자신의 종교인 불교인 듯 교회는 89년 11월 82년 불속법어, 89년 신년법어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조해 마치 자신의 종교인 불교인 듯

## "합동징수 동의"

당정, 관발로 간담회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분리징수 문제로 조계종과 정부가 대립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신한국당은 5일 조계종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기존대로의 합동징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재관람료 공원입장에 대해 조계종과 내부부 국립공원관리원 문제부 신한국당이 참석하는 5자합동회의를 10일 경 갖기로 했으나 내부부와 관리공단의 입장조율이 되지 않아 추석연휴 이후로 연기됐다.

## "이번 국회 농지법등 꼭 개정돼야"

조계종 적극 노력

조계종이 추진해 온 농지법과 자연공원법 개정이 10일 개최된 제 185회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일정이 100일에서 70일로 단축조정 됐으며 국정감사(10월 1일부터 18일)와 정치개혁법과 금융개혁관련법등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에따라 98년에 달하는 법안에 대한 종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관련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농지법개정은 농림수산해양부에 자연공원법은 내부위에 각각 계류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농지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제184회 임시국회 이후에도 총무원장 율주스님이 직접 여러차례 농림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당정 협의와 국회정각회 소속의원들에 대한 접촉도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징수의 법제화와 공원입장료에서 사찰의 기여도에 따른 문화재 수리보존비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8월초부터 마찰을 빚고 있는 분리징수 문제와 관련 조계종이 최종시한으로 정한 10월 15일 이후 다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 뉴스 & 뉴스

### 대구공불협 23일 발매식

공명선거실천 대구지역 불교단체협의회(이하 공불협)가 23일 10여개 단체가 발매식을 갖고 부정선거운동 고발선언문을 문명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053)426-7551

### 故장경호거사 22주기 추모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故 장경호 거사 22주기 추모법회가 7일 대원사에서 열렸다. 법흥스님(원효종 종정)의 추모사로 진행된 이날 추모법회는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연한 분위기 속에 봉행됐다.

### 총무원장 소송 고법기각

서울고법 제5부 민사부(부장판사 이복용)는 9일 황진경의 6인이 항소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김운성의 2인이 항소한 총무원장 선출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의없다고 기각했다.

### '하느님' 호칭 찾아야

하느님 호칭 되찾기 범민족회의(공동의장 정근철)가 주최하고 부산불교지비원(원장 정각)이 주관한 '불교의 미륵 신앙과 민족의 자각'이라는 주제의 대강연회가 7일 부산 코도모호텔에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포교다이어리 무료배포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불기 2542(1998)년 포교사용다이어리를 제작, 포교사들에게 무료배포키로 하고 제작에 들어갔다. 빠르면 10월중 열리는 하반기 포교사 연수회에서 배포될 다이어리는 19x26cm 2백50~3백쪽 분량에 포교법을 비롯한 포교사 관련 중점 및 규칙, 중무기관 안내, 각 지역별 신협단체 주소록 등이 수록된다.

## 마음 자유인의 삶

인간에게, 그냥 두둑두둑 겪어가는 사색다움의 삶, '모든 것을 오직 주에서 하는구나' 하고 믿고 가는 삶, 그것이 자유인의 삶이다.

협천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 목탁 소리

김중근 <취재1부 기자>

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풀지각한 처사다. 물론 '그까지 전단 몇장 배포했다고 그렇게 난리냐'는 반론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이같은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것이다. 전도사들이 사찰을 방문 스님들에게까지 전도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사찰에

할 필요가 없다. 더 불행한 것은 그 여파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평안과 행복을 위해 종교간 머리를 맞대고 24시간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타종교 혐의와 타도에만 꾀를 골추세우고 있는 저급한 이들. 바로 이들이 혼돈의 새기름에 나타나는 '갈 때까지 간 성직자'의 모습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모름지기 종교는 배타적 독선의 교설을 버려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에서 타종교에 대한 관용은 종교의 기본 덕목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불교유해전단을 배포한 해당 교회는 참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서로의 종교관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직자의 자세일 것이다.

###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현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요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린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경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 약 비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병중,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는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복합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살아가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  
기를 祈願드리옵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  
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교자 하오  
니 부담없이 劑邊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삼마니 재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회  
서울 「장뇌산삼」사업부

## 불기 2542(무인년) 달력 보급 안내

365일 밖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小)-사진 안장현', '동자승(大·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체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무인년 조건표가 들어 있습니다.

- 크기 : 小(26x26.5cm) 大(30x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 견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감로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 738-8682  
(야간) 011-265-0923

